



# 상악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임프란트를 이용한 보철적 접근법

곽재호 | 가천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통상적인 총의치로서는 유지, 안정,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나 fully implant supported prosthesis가 불가능한 경우 즉, 해부학적 제약이나 골양의 부족, 고정식 수복이 어려운 악간관계, 상악 치은과 보철물사이의 간극을 막지 못해 생기는 발음상의 문제, lip support를 포함한 심미적 요구도, 경제적 제약 등이 있을 때 임프란트-조직 지지 overdenture를 선택할 수 있다. 상악의 경우엔 하악보다 골양이나 골질의 불리함, 임프란트 식립 및 보철물 제작의 어려움과 불완전한 예후로 인해 하악에 비해서는 흔하게 사용되지도 않으며 성공률도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음, 심미, 안모 지지가 양호하여 대개 3~4개의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제작하고 있다. 상악 임프란트 overdenture에서는 6개이상 임프란트를 좋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으면 구개부의 피개를 피할 수 있는 horse-shoe type(palatal-free type)의 의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악궁에 있어서는 임프란트 환자의 선택을 위한 기준은 엄격하여야 한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심하게 흡수된 무치악 상악골에서 임프란트에 의해 지지를 받는 overdenture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는 개개 임프란트에 있어서 낮은 성공률(84%)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보철물에 있어서도 낮은 성공률(92.3%)을 보인다.

임프란트 overdenture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프란트 유지형, 조직 지지형태이고, 두 번째는 임프란트 유지형, 임프란트 지지형태이다. 전자는 지지를 위하여 잔존치 조제상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고 임프란트는 이들이 위치하는 악궁의 영역에서 지지를 제공하지만 임프란트의 개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한정된다. 후자는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고 의치의 부하는 결과적으로 모든 교합압을 받는 임프란트에서 담당한다. 의치의 변연부는 의치하방으로 음식잔사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조직위에 놓여 져야 한다.

이번 본 증례에서는 60세 남자 환자로 #13치아가 잔존된 상태로 구개부위를 피개한 가철성 국소 의치를 장착하였으며 하악은 자연치열인 상태로 주소는 의치의 구개피개로 인한 불편감이었다. 이에 임프란트식립 당일날 #13은 동시에 발치하면서 6개의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hader bar와 clip을 이용한 구개부위를 피하는 형태(horse shoe type)의 implant overdenture를 시행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